

# 『당절선산(唐絶選刪)』 소재 비어(批語)의 분석(1)\*

비어의 작자 고증과 편집 양상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biao(批語, marginal notes) in *Dangjeolseonsan*(唐絶選刪)(1)

: Focusing on Authorship Attribution and Editorial Patterns

임미정\*\*

**국문요약** 본고는 허균이 편찬한 당(唐)의 절구 선집 『당절선산(唐絶選刪)』의 비어에 대한 연구로, 그 작성 주체를 고증하고, 허균에 의해 시도된 비어의 편집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당절선산』은 허균이 이반룡의 『고금시산』, 서충의 『백가선』, 양사홍의 『당음』, 고병의 『당시품회』 등 네 종의 시선집에서 오·칠언 절구만을 선별하여 구성한 선집이다. 현존본은 허균의 수택본 1종만이 전하는데, 862제 926수의 시가 수록된 사실 외에도 301개의 비어가 주묵(朱墨)으로 부기되어 있다. 이들 비어는 기존의 중국 문헌에 소재한 시평을 옮긴 것이 다수지만, 비어를 작성했던 인물이 직접 남긴 독자적인 비평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어의 작성자가 『당절선산』을 편찬했던 허균인지, 혹은 제3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하여 비어의 내용 분석도 시도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비어의 작성 주체를 고증하고 『당절선산』에 적용된 비어의 출전과 편집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허균의 『당절선산』 편찬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 책에 적용된 중국 평주본 시선집의 영향까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허균, 『당절선산』, 『비점당음』, 『당시품회』, 『당음』, 『고금시산』, 『당이가시초』, 한시비평, 비어, 편집

- 차례**
1. 머리말
  2. 『당절선산』 비어의 작자 고증
  3. 『당절선산』 비어의 출전과 편집 양상
  4. 맺음말

선(百家選)<sup>1</sup>, 양사홍(楊士弘)의 『당음(唐音)』, 고병(高棟)의 『당시품회(唐詩品彙)』—에서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만을 선별해서 만든 당시(唐詩) 절구 선집이다. 이 책은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권5, 「문부(文部)」 2에 수록된 「제당절선

## 1. 머리말

『당절선산(唐絶選刪)』은 허균이 4종의 중국 시선집—이 반룡(李攀龍)의 『고금시산(古今詩刪)』, 서충(徐充)의 『백가

1 서충(徐充)이 편찬한 『백가선(百家選)』이라는 책은 『평주백가당시회선(評注百家唐詩彙選)』으로 추정된다. 『평주백가당시회선』은 중국 요녕성 도서관에는 서극(徐克)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있지만(孫琴安 著, 『唐詩選本提要』, 上海書店出版社, 2005, 138쪽) 항주 절강도서관에는 이 책의 편자가 서충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부유섭, 「허균이 뽑은 중국 시(1): 『唐絶選刪』」, 『문헌과해석』 27, 문헌과해석사, 2004; 부유섭, 「『당절선산』 해제」, 『당절선산』(허균전집5), 보고서, 2022). 서충이 편찬한 시선집으로는 이밖에 『당시류초(唐詩類鈔)』가 있지만 일실본이라서 그 내용과 규모는 알 수 없으며(孫琴安 著, 『唐詩選本提要』, 上海書店出版社, 2005, 166쪽), 그가 편찬한 또 다른 시선집으로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에 소장된 『당시수선(唐詩粹選)』(청구기호 T 5237.47 2901)이 있는데, 허균이 보았다는 『백가선』과는 제명부터 거리가 있고, 수록 시도 서충의 『백가선』에서 선발한 『당절선산』의 권2, 권7과는 다른 구성이다. 필자는 『평주백가당시회선』이라는 책이 허균이 칭한 『백가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실본 확인 통해 추후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5559).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산서(題唐絕選刪序)」라는 글을 통해 편찬 사실은 알려졌지만, 현존 여부는 알 수 없었다. 2004년에서야 부유섭 선생 님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古貴3715-3)에 소장된 유일본 필사본의 존재가 밝혀졌고, 그 내용도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sup>2</sup> 이후 조선조 당시 선집의 편찬 양상을 살피는 연구에서 허균이 편찬한 『당절선산』이 언급되었는데, 다양한 방면으로 당시 선집을 편찬한 허균의 선시 방향은 결국 전후칠자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sup>3</sup> 또한 『당절선산』은 허균의 중국 문학에 대한 독자적 이해의 한 방식에서 파생된 시선집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sup>4</sup> 이밖에 17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중국 시선집의 한 사례로, 선시 대상이 되었던 중국 시선집의 수록 작품들과 『당절선산』의 작품 수를 비교하여 허균만의 선시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 분석된 결과도 제출되었다.<sup>5</sup> 비슷한 맥락으로 『당시품회』의 조선 수용 연구 과정에서 허균이 『당절선산』에서 『당시품회』를 얼마나 참고했는지를 작품 수로 비교하여 수치화한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sup>6</sup> 최근에는 이반룡의 『고금시산』에 수록된 당의 절구가 『당절선산』에 대부분 반영된 사실에 주목하여, 이반룡의 감식안을 수용한 바탕에서 허균의 선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선시의 방향까지 논구되었다.<sup>7</sup>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당절선산』이라는 책의 가치라든지 수록된 시의 성격, 허균의 선시관과 선시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당절선산』에는 시 외에도 시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 설명이나 교감의 역할까지 겸하는 비어(批語)<sup>8</sup>가

301개나 부기된 특징이 있다. 이 비어들은 주목(朱墨)으로 시제(詩題) 아래나 시의 말미, 비평 대상 시어나 시구 옆에 작은 글씨로 기록되었는데, 비어의 다수는 “顧云” “劉云” “謝云” “梅云” “徐禎卿云” “范云” “洪云” “王元美云” 등으로 시작하고 있어서 중국 문인들의 비평을 옮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愚謂”로 시작한다든지 누구의 비평인지 특정되지 않은 “中唐佳品” “極好” “樂府高語極其古雅”와 같은 비어도 128개나 확인된다. 시와 함께 기록된 이 많은 비어들은 『당절선산』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편찬 배경과 책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절선산』의 비어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는 『당절선산』 비어의 일부가 중국의 평주·비점본 시선집에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지만,<sup>9</sup> 비어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비어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서도 책의 편자인 허균이라는 적극적인 추정<sup>10</sup>이 있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여전히 미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허균의 당시 절구 선집인 『당절선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목적에서, 이 선집에 부기된 비어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 비어 작성자를 확정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어 필사자를 고증하고, 이어서 비어 분석을 통해 『당절선산』 수록시의 성격과 편찬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부유섭, 앞의 논문, 2004.

3 전송열, 「조선조 당시선집의 편찬 양상」, 『동방고전문학연구』 6, 동방고전문학회, 2004.

4 노경희, 「허균의 중국 문단과의 접촉과 시선집 편찬 연구」, 『한국한시연구』 14, 한국한시학회, 2006.

5 최은주, 「17세기 시선집 편찬에 대한 연구」, 경북대 대학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6 전염순, 「조선시대 『당시품회』의 간행과 수용」,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7 구지현, 「허균의 시선집 『당절선산(唐絶選刪)』의 구성과 선시(選詩) 양상」, 『연민학지』 40, 연민학회, 2023.

8 대상 작품에 직접 붙인 짧은 비평 글을 ‘비(批)’라고 한다. 이 방면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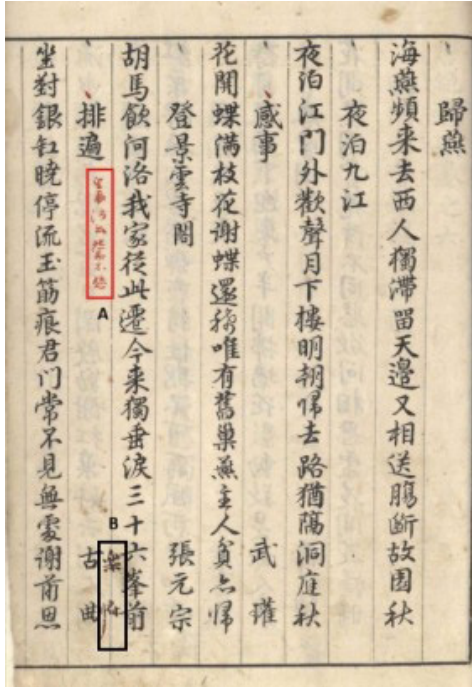
는 ‘평점본(評點本)’ 문헌 연구에서 논의되면서, 연구자에 따라서 혹은 연구 대상에 따라 비어에 대해 ‘평(評)’ ‘평비(評批)’ ‘비평(批評)’ ‘평주(評註)’ ‘평어(評語)’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 ‘비어(批語)’라고 한 것은 허균이 고린(顧麟)의 『비점당음(批點唐音)』에 붙은 비평 글을 ‘비어(批語)’라고 지칭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其批語或透窺處, 或礙不通處, 或明概或晦, 而去就頗不失體, 其用功之不怠, 概可見矣.”(許筠, 『惺所覆瓿藁』 卷13, 『批點唐音跋』(『韓國文集叢刊』 74輯)).

9 부유섭, 앞의 논문, 2004.

10 『국조시산』의 분석 과정에서 비어를 통한 허균의 한시 비평 방식의 한 사례로 『당절선산』에 허균의 비어가 부기된 사실이 언급되었다. 임미정, 『국조시산 연구』, 보고서, 2017.

## 2. 『당절선산』 비어의 작자 고증

### 2.1. 필적을 통한 고증



〈그림 1〉 『당절선산』에 보이는 여러 필적

『당절선산』은 허균의 인장이 찍혀 있는 허균의 구장본으로, 허균 생전에 본 필사본 한 종만이 제작되어 유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이 책이 허균의 편저이면서 수택 본인 상황이라든지, 허균이 평소 한시 선집이나 개인의 시집에 비어를 적극적으로 붙였던 사실을 고려하면,<sup>11</sup> 정황상 『당절선산』에 붙은 비어는 허균의 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는 일실 상태지만 허균이 편찬한 중국 시선집 『고시선(古詩選)』의 서문을 보면, “간간이 부족한 소견으로 한두 가지를 논평했으나 세상에 전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애오라지 내가 독자적으로 얻은 바를 표현하여 때때로 읊조리며 범도로 삼고자 한 것이다.[間以陋見, 商榷其一二, 非欲以傳世, 聊表余所獨得, 而時誦以取法焉.]”<sup>12</sup>라고 한 것이 있다. 기존에 알려진 비어 외에도 허균이 추가

로 비어 작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비어가 한시 공부와 정리의 과정에서 파생된 하나의 결과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당절선산』에 보이는 비어 역시 『고시선』의 비어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여, 허균의 작업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당절선산』에는 비어와 관련된 다른 기록이 전무하며, 권수에 붙은 허균의 성명과 작업 내용에 대한 기록은 10개가 모두 오려진 상태이다.<sup>13</sup> 정황만으로는 허균의 작업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허균의 필적과 『당절선산』의 비어 글씨를 비교하여, 필적을 통한 작자 고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당절선산』에는 모두 3인의 필적이 남아있다. 먼저, 〈그림 1〉을 보면 시제와 시, 작가로 구성된 시 본문은 한 사람의 수려한 글씨로 필사되었는데, 권1에서 권10까지 이 필적이 일관되게 이어진다. 다음으로, 시제 아래나 시구의 옆, 시의 말미 등에 위치한 비어가 있는데 이는 주목의 소자로 기록되었고 본문의 필사자와는 다른 필체이다(〈그림 1〉의 필자가 표시한 A에 해당). A의 필체는 비어 외에도 책 전체에 걸쳐 오자 수정을 하고 있어서, 비어를 기입한 인물이 본문의 수정도 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후대 소장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필적이 있는데(〈그림 1〉의 필자가 표시한 B에 해당), 검붉은색의 먹을 사용하여 일부 작가명을 수정하였고, 제1책의 표지 안쪽에 “靑默載品彙”를 쓰고 시제 상단에 점을 찍은 것도 B의 작업이다.

『당절선산』에 보이는 3종의 필적 중에서 주목할 것은 A의 필적이다. 이 비어의 글씨는 허균이 남긴 친필 간찰의 필체와 상당히 유사하다. 따라서 이 필적을 허균의 친필과

11 허균은 조선 시선집 『국조시산(國朝詩刪)』 전체에 비어를 부기했고, 송의 필의 『비선구봉선생시집(批選龜峯先生詩集)』, 허적의 『수색집(水色集)』에도 비어를 통한 한시 비평을 한 바 있다.

12 許筠, 『惺所覆瓶藁』 卷4, 「文部」1, 〈古詩選序〉(『韓國文集叢刊』 74輯).

13 10권으로 구성된 본책은 매권의 첫면마다 중국 시선집의 편자와 허균의 성명이 한 행에 상하로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현존본은 허균의 성명만 오려진 상태이며 잘려 나간 종이의 면적을 고려하면 길게는 “明陽川許筠端甫氏批選”로, 짧게는 “陽川許筠端甫批選”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하여, 『당절선산』의 비어가 정황상 허균일 가능성이 높다가 아닌 사실로 확정하고자 한다.

본고는 허균의 친필 간찰을 직접 접하지 못했고, 논문이나 책을 통해 이미 공개된 간찰로 필적을 살폈다. 대상이 된 간찰 3종은 다음과 같다.

- ① 성균관대 소장 허균 간찰(吳世昌 編輯, 『權墨』禮,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9)
- ② 허경진 선생님 소장 허균 간찰(허경진 지음, 『허균 평전』, 돌베개, 2002)
- ③ 허재영 선생님 소장 허균 간찰(개인 소장 간찰)

〈표 1〉은 위 3종의 간찰에 기록된 글자가 『당절선산』 비어에 있는 경우, 이들을 함께 제시하여 유사성을 살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표 1〉 원편에 위치한 기준이 되는 글자들은 3종의 간찰에서 초집하여 글자 아래 소장처(또는 소장자)를 밝혀놓았고, 乾(권1~6)과 坤(권7~10)의 두 책으로 장정된 『당절선산』의 경우는 글씨가 위치한 권수와 면수를 함께 기재해 놓았다.

〈표 1〉을 보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모든 글자가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간찰에서 힘주어 굵게 표현된 획들은 『당절선산』 비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쓰는 이에 따라 개성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以’나 ‘不’의 필체도 같다. ‘卽’에서 자소(字素)인 ‘匕’를 점으로 처리한 것은 허

〈표 1〉 허균 친필 간찰과 『당절선산』 비어의 필체 비교

卽				後		
	허재영소장	허경진소장	권6_97면		성대소장	권6_77면
相				況		
	허재영소장	권10_102면	권1_5면		허재영소장	권6_105면
以				恐		
	허재영소장	권6_84면	권8_51면		허경진소장	권8_57면
清				佳		
	허재영소장	권8_56면	권6_83면		성대소장	권6_77면
何				稍		
	허재영소장	허경진소장	권6_77면		허재영소장	권6_101면
耶				於		
	허재영소장	권6_104면			허재영소장	권10_138면
				不		
	허재영소장	권8_62면			성대소장	권3_29면
者						
	허재영소장	허경진소장	권3_36면	권6_91면	권3_25면	권7_14면
得						
	성대소장	허경진소장	허재영소장	허재영소장	권8_39면	권5_68면
詩						
	허경진소장	성대소장	권5_57면	권6_106면	권6_91면	권7_19면

균의 개성적인 필법인데, 『당절선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또한 자소 ‘ㄷ’의 마지막 획인 세로획에 대해 왼쪽을 향하는 곡선으로 뺀 모습도 특징적인데, 이는 <표 1>에서 ‘卽’뿐 아니라 ‘耶’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표 1>에서는 서체가 유사한 사례만 제시했지만, 사실 허균의 간찰은 행초(行草)로 기록되었고, 『당절선산』의 비어는 해행(楷行)을 넘나드는 모습이다. 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필법이 달라져서 결과물을 비교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예시가 많지 않은 조건에서도 <표 1>의 ‘恐’ ‘沉’ ‘稍’ 등의 글자는 동일인의 필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로 판단된다.

허균의 필체에 대해서는 같은 글자끼리의 단순 비교도 가능하지만, 자소에 반영된 허균만의 독자적인 필체도 여러 글자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이들 사례를 묶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추가로 살필 허균 필법의 특징은 ‘得’과 ‘詩’, ‘謝’ 등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ㄷ’ 형태 자소에 대한 것이다. 3획으로 된 이 자소는 허균이 쓴 행서에서는 제1획과 제2획을 한 획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모든 글자에서 확인된다. 특히 <표 2>의 성대 소장 간찰의 ‘詩’와 『당절선산』 권8\_39면의 ‘得’에서의 ‘ㄷ’ 부분이 같고, 이는 <표 1>의 성대 소장 간찰의 ‘得’, 허재영 소장 간찰의 ‘得’서도 같은 모

습이다.

또 다른 허균의 필법으로 ‘立’ 형태의 자소에 대해 점을 세 번 찍는 방식으로 쓴 특징이 확인된다. ‘立’ 자소는 대체로 제1획은 점으로 처리하지만, 제2획과 제3획은 연결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균은 1~3획을 점에 가까운 짧은 획으로 세 번 찍듯이 표현했고, 균일한 길이와 획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허균의 간찰 중에 ‘立’ 자소는 <표 3>에서와 같이 허재영 소장 간찰의 ‘妾’과 ‘章’에서 보인다. 다만, 『당절선산』 비어에는 이 두 글자가 없어서 ‘立’ 형태 자소를 가지고 있는 ‘意’ ‘竟’ ‘寵’ ‘音’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 3>으로 제시해 보았다.

추가로 살필 것은 위와 유사한 필법으로, 자소로 원편에 위치한 ‘言’의 경우에서 허균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허균은 ‘言’의 제1획부터 제4획까지를 ‘立’ 자소와 비슷하게 점과 가까운 획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해서에서 가로 길이가 비교적 길어진 제2획에 대해, 일관되게 제3, 4획과 같은 길이로 처리하면서 점의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 허균 필체의 특징이다. 더불어 ‘言’을 구성하는 자소 ‘口’를 역삼각형의 형태로 마무리하면서 3획으로 처리한 것도 <표 3>의 글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이상으로 『당절선산』에 기록된 주목 소자의 비어 필적과 허균 친필 간찰의 필적을 함께 살펴서, 두 필적 모두 허

<표 2> ㄷ 형태 자소의 글씨체 비교

							
허재영소장	허경진소장	성대소장	권8_39면	권6_106면	권5_57면	권5_63면	권5_63면

<표 3> 言 형태 자소의 글씨체 비교

							
성대간찰	권7_17면	권5_63면	권7_16면	권6_91면	권6_105면	권6_105면	권8_39면

균에 의해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절선산』에 부기된 비어들이 허균의 작업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존본 『당절선산』은 허균의 인장이 찍혀 있는 허균의 수택본이면서, 허균의 필적까지 남아 전하는 문헌 자료로, 그 자료적 가치까지 새롭게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2. 『국조시산』 비어와의 비교를 통한 고증

앞절에서 이미 필적 확인을 통해 『당절선산』의 비어가 허균에 의해 기록된 사실을 입증해 보았지만, 허균이 다른 문헌에 붙였던 비어들과 『당절선산』의 비어를 함께 살펴 면서 추가적으로 그 유사성의 정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허균이 붙인 비어가 전하는 문헌으로는 『허적(許禱)의 『수색집(水色集)』과 송익필(宋翼弼)의 『비선구봉선생시집(批選龜峯先生詩集)』, 허균의 『국조시산(國朝詩刪)』이 있다. 이 중에서 『수색집』은 허균과 김세렴의 비평이 섞여 있어서 비교 대상 자료로 적절하지 않고,<sup>14</sup> 『비선구봉선생시집』의 경우에도 비어 작성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sup>15</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허균이 쓴 사실이 명확한 『국조시산』 소재 비어를 대상으로 『당절선산』 소재 비어와의 구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당절선산』에 부기된 비어는 모두 301개가 확인되지만, 이 비어들은 크게 중국 문인의 비어를 허균이 옮긴 것과 허균이 직접 쓴 비어로 나뉜다. 이 중에서 『국조시산』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허균의 독자적인 비평은 모두 128개이다. 문제는 비어의 전통이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허균 역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편찬된 평주본 시선집의 비평 방식과 구법을 학습한 문인으로서 그의 글 역시 기존의 비어와 닮을 수밖에 없다. 실령 인용이 아닌 허균의 자작 비어라 하더라도, 실제 창안된 표현은 제한적이었을 것이

〈표 4〉 『당절선산』과 『국조시산』 비어의 비교

『당절선산』의 비어	『국조시산』의 비어
비어가 같은 경우	
聲俊(권1)	聲俊
極好(권1)	極好
亦好(권3)	亦好
名言(권5/권10)	名言 / 名言名言
意好(권5/권9)	意好
婉切(권7)	婉切 / 結亦婉切 / 婉切有味 / 通篇清新婉切, 眞韋孟高韻
비어가 유사한 경우	
豪放而淵(권1)	豪放自恣 / 氣自豪放
情切(권2)	一體便情切
寫得動人(권2)	寫得緊要 / 寫得森何 / 寫得塞上歸思動人 / 寫得曉景便眞
極古極幽(권2)	運思極幽而巧
襯而不粘(권3)	襯切不粘 / 接得襯着 / 引事切而不粘 / 奇而襯 / 形容得襯
緊(권3)	緊重 / 寫得緊要 / 雖欠緊要, 望之眇冥
極佳極切(권3)	三四極佳, 結稍不揚 / 極佳句 / 極切諷之令人破涕
殊麗(권5)	清麗 / 清麗絕世 / 亦自清麗 / 麗而不靡, 鑪錘嚴重
感慨(권6)	何等感慨 / 感慨之言 / 感慨勝前篇 / 無限感慨, 讀之愴然
最佳可肩韋錢(권6)	婉語猶是韋錢遺意
中唐平韻(권6)	中唐高品
峭(권6)	峭麗 / 何等峭麗 / 亦自奇峭 / 清峭 / 一篇奇峭渾融 / 幽峭
‘覽古’只在一結, 尤高妙(권6)	高妙 / 通篇無雕績, 而語自高妙
可恨(권7)	恨情可掬 / 可破千古恨涕 / 恨思入骨 / 刺骨恨語, 直是杜陵
岑寂婉亮(권7)	岑寂語
峭而鏗然(권8)	蒼然鏗然, 有韻有骨
較俗(권8)	拔俗 / 仙標拔俗 / 磊砢脫俗 / 亦自脫俗 / 便不俗
亦自悲慨(권8)	悲慨 / 悲慨可涕
峭而隱約(권8)	情思隱約
樂府妙語(권8)	篇皆遍唐人樂府 / 三篇極似唐人樂府 / 非古樂府, 故錄之于此
正似龍標(권8)	無愧王龍標李君虞
最是得意之作(권9)	五六得意 / 極是得意 / 得意濃時
閑澹有味(권9)	閑澹 / 泓淨閑澹 / 閑澹沖融, 酷似淵明
結奇(권9)	便奇 / 語奇 / 奇拔 / 亦自奇峭 / 奇拔壯浪, 一洗脂粉 / 澹語造奇
鬼語(권9)	似鬼語 / 恍惚似鬼語 / 幽陰鬼語格高語超, 極似鬼語
樂府高語極其古雅(권10)	古雅 / 極古雅

14 장유승, 「수색 허적의 고품시 소고」, 『한국한시연구』 30, 한국한시학회, 2001; 윤호진, 「『수색집』의 두평에 대하여」, 『한문교육논집』 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15 이항배, 「批選龜峯先生詩集의 批注 體例와 著者」, 『한문학논집』 29, 근역한문학회, 2009.

며, 상당수는 선행 구법을 차용하거나 변용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허균이 편찬한 두 문헌에서 같거나 유사한 비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은, 해당 비어들이 동일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본절에서는 허균이 직접 부기한 『당절선산』의 비어 128개를 대상으로 『국조시산』 비어와 비교해 보았다.

〈표 4〉에서는 두 문헌에 부기된 비어를 비교하여, 비어가 같은 경우와 유사한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우선, “聲俊” “婉切” “極好” “亦好” “名言” “意好” 는 두 책에 모두 보이는 같은 모습의 비어이다. 이 중에서 “極好” “亦好” “名言” “意好” 는 평자의 주관적인 감상 위주의 평가로 특별한 비평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비어로서는 흔치 않은 두 글자의 대가비평(大家批評)<sup>16</sup> 방식이면서, 두 문헌 모두에 보인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聲俊” 과 “婉切” 의 경우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검색하면, 다른 문인들이 사용한 용례는 극히 드문 것에 비해, 두 표현 모두 『성소부부고』에서 허균이 이미 썼던 사실이 확인된다.<sup>17</sup> 허균이 창안한 것은 아니지만, 허균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당절선산』에서도 보인다는 점은 비어의 작자를 고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어가 두 문헌에서 유사한 문장으로 적용된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앞의 〈표 4〉에서는 “豪放而淵(『당절선산』) - 豪放自恣(『국조시산』)/氣自豪放(『국조시산』)” 과 같이 문장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豪放” 과 같은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문장이 조합된 비어들을 찾아서 함께 묶어 보았다. “情切(『당절선산』) - 一體便情切(『국조시산』)” 이라든지 “亦自悲慨(『당절선산』) - 悲慨(『국조시산』)”, “感慨(『당절선

산』) - 何等感慨(『국조시산』)/感慨之言(『국조시산』)” 등은 사실상 같은 비어가 적용된 사례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어가 장문화 될수록 표현상 여러 조합의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평의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문장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표 4〉에서는 비평의 방향과 내용, 핵심 비어의 적용 양상을 기준으로 유사한 사례들을 묶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절선산』에 수록된 상당수의 비어가 『국조시산』의 비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당절선산』 비어의 출전과 편집 양상

#### 3.1. 『당절선산』 수록시의 개관

〈표 5〉 『당절선산』의 시제수

乾	권1	明濟南李攀龍于鱗選	51제 54수	
	권2	明江陰徐充子擴選	44제 46수	
	권3	元襄城楊士弘伯謙選	99제 105수	오언절구 합계: 328제 351수
	권4	元襄城楊士弘伯謙選	49제 55수	
	권5	明新寧高棟廷禮選	85제 91수	
	권6	明濟南李攀龍于鱗選	110제 123수	
坤	권7	明江陰徐充子擴選	103제 106수	
	권8	元襄城楊士弘伯謙選	84제 95수	칠언절구 합계: 534제 575수
	권9	元襄城楊士弘伯謙選	91제 95수	
	권10	明新寧高棟廷禮選	146제 156수	

『당절선산』 시제수 862제 926수

『당절선산』은 당시 중에서 오언절구와 칠언절구를 허균이 선별해서 모아놓은 시선집으로, 10권 2책의 구성으로 전한다. 오언절구는 권1부터 권5까지 328제<sup>18</sup> 351수

16 『국조시산』 비어에 적용된 대가 비평의 방법에 대해서는 심경호, 「연민선생의 문학연구방법론에 관한 규건」, 『연민학지』 17, 연민학회, 2012, 233 쪽에서 소개한 바 있다.

17 “聲俊”은 『惺所覆瓿稿』卷4, 「文部」1, 〈唐詩選序〉에 보이고, “婉切”은 『惺所覆瓿稿』卷3, 「賦部」, 〈續靜姪賦 并序〉와 『惺所覆瓿稿』卷13, 「文部」10, 〈歐蘇文略跋〉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 왕유의 〈雜詩〉 2수가 권1에 한 수, 권3에 한 수로 각각 수록되어 있어서, 이 시들은 책 전체로 보았을 때는 1제 2수이다. 따라서 권3의 〈雜詩〉 1제 1수에 대해서는 0제 1수로 처리하여 합산해 놓았다.

가, 칠언절구는 권6부터 권10까지 534제 576수가 수록되어 있다. 오언절구에 비해 칠언절구의 시수가 많다 보니, 장책 과정 과정에서는 분량을 고려하여 건책은 권1부터 권6까지, 곤책은 권7에서 권10이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표 5>에서 보이듯 권수마다 선시의 대상이 된 중국 시선집을 편찬했던 인물을 기록하였고, 그 아래 자신의 작업임을 밝히는 방식으로<sup>19</sup> 시의 출처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오언절구와 칠언절구 모두 ‘이반룡(권1,6)-서충(권2,7)-양사홍(권3,8)-양사홍(권4,9)-고병(권5,10)’의 순으로 시선 결과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반룡의 『고금시산』에서는 161제 177수, 서충의 『백가선』에서는 147제 152수, 양사홍의 『당음』에서는 323제 350수, 고병의 『당시품회』에서는 231제 247수를 선발하여 『당음』에 수록된 시를 가장 비중 있게 선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실본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서충의 『백가선』을 제외하고, 『당절선산』을 『고금시산』, 『당시품회』, 『당음』과 각각 비교하여서, 『당절선산』 수록 시의 성격을 고찰하거나, 편자인 허균과 관련한 선시관이나 선시 방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다만 책에 대한 설명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비어 관련 논의와 관심이 부재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당절선산』을 재검토하였다.

먼저, 이 책의 시제수에 대한 기존 통계들은 수정이 필요하다. 『당절선산』을 언급하거나 분석하고 있는 선행 연구에서는 시제수를 873제 936수로 확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언절구에서 시제 중복이 있고, 칠언절구에서는 10제 10수가 중복이기 때문에 862제 926수이다. 이 책에서 중복 수록된 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권7 ①趙嘏, <江樓書感> ②司馬禮, <宮怨> ③崔魯, <華清

宮><sup>20</sup>

권8 ④張籍, <涼州詞>

권9 ⑤杜牧, <山行> ⑥李商隱, <夜雨寄北> ⑦未詳, <胡笳曲>

권10 ⑧李白, <望天門山> ⑨顧況, <聽角思歸> ⑩張仲素, <漢苑行>

이 10수의 시들은 앞권에 이미 수록된 시인데 해당 위치에 재선발되어 기록되었다. 현존본 『당절선산』을 보면 이 중복된 시들에 대해서 허균의 필체로 “重見” “重出” “疊出”<sup>21</sup> 등의 표기가 있어서 중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중복된 시들은 모두 칠언절구여서 이 문제는 책의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10수의 시가 중복 수록된 것은 이 책의 선발 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절선산』에서 선시 대상으로 삼은 중국 시선집 4종에는, 각 선집에 공통으로 수록되었거나 둘 이상의 선집에 중복 수록된 작품들이 존재한다. 다만 『당절선산』은 각 책의 시를 종합적으로 수합·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마다 특정 시선집별로 시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대상 자료에 중복 수록된 시들을 면밀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재차 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당절선산』에서는 각권마다 위의 <표 5>에서와 같이 선시의 자료로 삼은 시선집을 명시하고, 또 기존 시선집의 시 수록 순서를 준수하면서 시를 선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들은 권수에 밝힌 출전에 없는 시여서 선집 편집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최노(崔魯)의 <화청궁(華淸宮)>은 원래 연작시로, 권6에 “草遮回磴絕鳴鑾”으로 시작하는 시가 한 수 수록되었고, 권7에는 같은 제목으로 2수가 실렸는데, 제1수는 “草遮回磴絕鳴鑾”로 시작하고, 제2수는 “銀河漾漾月暉暉”로 시작한다. 따라서 권7의 1제 2수 중의 한 수는 중복이 된다. 이를 책 전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최노의 <화청궁> 시는 1제 2수가 수록된 것이기 때문에 권7에서 새롭게 수록된 연작시 중 1수는 권6에 시제가 이미 있어서, 1제 1수가 아닌 (0제) 1수로만 계산하였다. 본고에서는 중복된 시제와 시는 모두 제외하고 시제수를 정리했음을 밝힌다.

21 중복된 시에 대한 표기가 달라진 것은 이 중복 문제를 한 번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중복 상황을 알게 된 해당 시점에 표기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 현존본의 권수면에는 허균의 ‘본관-성명-자-작업내용’이 기재된 ‘陽川許筠端甫批選’류의 기록이 10건 모두 오려져 있는 상태이다.

〈표 6〉 『당음』에서 선발한 권3,4의 시 중에 『당음』에 없는 시

권수	작가	시제	비어
권3	(上略)	(上略)	(上略)
	張籍	涇州塞	
	王建	田家	
		故行宮	
		新嫁娘	題: 顧云 樂府要有此意 方不徒作
	劉禹錫	視刀鏢歌	題: 意幽情眞 不可模捉 尾: 顧云 深沈
권4	李義府	詠鳥	
	張九齡	自君之出矣	
	朱放	銅雀妓	
	(下略)	(下略)	(下略)

앞서 〈표 5〉를 통해 각권별 저본이 되었던 중국 시선집과 시수를 정리한 바 있다. 『당절선산』의 권3과 권4는 양사홍의 『당음』에서 선발했다고 허균이 밝혔지만, 일부 수록시는 『당음』에서 찾아볼 수 없다. 〈표 6〉은 출전에 존재하지 않는 시들을 모은 것인데, 우선 권3 말미의 장적(張籍)의 〈涇州塞〉부터 유우석(劉禹錫)의 〈視刀鏢歌〉까지 이 5수의 시는 『당음』에 없다. 이 문제는 권4의 앞부분까지 이어진다. 권4의 수위에 자리한 이의부(李義府)의 시 〈詠鳥〉부터 장구령(張九齡)의 〈自君之出矣〉, 주방(朱放)의 〈銅雀妓〉 3수 역시 『당음』에 없는 시이다. 게다가 이의부(李義府)의 시는 『당절선산』에 허경중(許敬宗)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日裏颺朝彩”로 시작하는 이 시를 허경중으로 잘못 기록한 선행 시선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규모가 큰 『당시품회』에는 〈표 6〉의 시가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당시품회』에서 선발한 시들은 권5에 배치되어 있다. 『당시품회』 역시 이의부의 시를 허경중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당절선산』에는 작가명이라든지 시제 일부에서 오류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서, 이 문제들은 시를 수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가 일부 혼입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절선산』은

선시 과정에서 기인한 시의 중복 사례라든지, 실제 수록 시들이 허균이 밝힌 저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는 책이다. 완성도 면에서 적어도 간행을 고려했거나, 간행 직전의 최종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절선산』을 비롯하여 앞서 서문을 통해 본 『고시선』 등의 선집은 허균이 전범이 되는 시들을 개인적인 목적에서 모아놓거나 혹은 학시 과정에서 파생된 정리본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관련하여 중당(中唐)과 만당(晚唐) 시의 비중이 높은 이 책의 선시 방향에 대해서도 추후 다각도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선시 대상 시선집과 『당절선산』의 수록 시에 대해서 시수에 대한 단순 비교와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뒷권에서는 앞권에서 선발된 시를 제외하면서 선발하였고, 앞권에서 선발에서 제외된 시가 뒷권에 수록되어 있을 때 이를 나중에 선발한 경우도 있어서 선시 결과 분석도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당절선산』 수록시에 붙은 비어의 작성 주체와 내용을 살피는 목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선시 관련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관련 논의는 후고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 3.2. 『당절선산』 비어의 출전과 편집 양상

#### 3.2.1. 『당절선산』 비어의 출전

허균이 편찬한 당의 절구 선집인 『당절선산』에는 862제 926수의 시가 선별되어 전하지만, 허균이 붙인 301개<sup>22</sup>의 비어도 확인할 수 있어서 주목된다. 『당절선산』의 비어는 크게 허균이 타인의 비평을 옮겨놓은 것과 자신이 직

<sup>22</sup> 본고에서는 허균이 쓴 주목의 소자를 모두 비어로 파악하지 않았다. 허균은 주목으로 오자 수정도 하고 있고, 간혹 잘못 필사된 오류도 고치고 있으며, 비어를 붙이고 있는 위치에서 “或作朱佐日” “一作悲” “亦許作” 등과 같은 교감주도 붙였다. 이러한 교감주는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일반적으로 비평어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본 『당절선산』에 붙은 다수의 비어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비어 301개 내에 포함하지 않았다.

접 붙인 것으로 나뉜다. 다른 두 성격의 비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허균이 선행 문헌에서 가져온 중국 문인들의 비어는 대부분 “○云”으로 시작한다.<sup>23</sup> “劉云” “方云” “楊誠齋云” “葉云” “顧云” “梅云” “蕭云” 등으로 비어에 등장하는 중국 비평가들은 비평 내용을 검색한 결과로, 유진옹(劉辰翁), 방회(方回), 양만리(楊萬里), 섭몽득(葉夢得), 고린(顧麟), 매정조(梅鼎祚), 소사빈(蕭士贇) 등임을 알 수 있었다.

『당절선산』의 비어들은 “○云”이라는 표기가 있어서 기존 비평을 인용했다는 상황만 확인 가능할 뿐이며, 출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양수(歐陽脩)의 『육일시화(六一詩話)』에 대해 “歐公詩話云”이라고 하여 인용처를 명시한 사례가 한 군데 확인되지만, 해당 비어는 『당시품회』 주석본에 이미 제시된 비어여서, 허균이 『육일시화』에서 직접 인용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당절선산』에 소개한 비어들을 중국 시선집과 시화에서 찾아본 결과, 허균이 각 문인들의 개별 저술을 통해 비어를 선발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비어가 초집된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비어를 옮겨왔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이 된 자료들은 크게 고명의 『당시품회(唐詩品彙)』, 고린의 『비점당음(批點唐音)』과 매정조의 『당이가시초(唐二家詩鈔)』이다. 특히 『당시품회』 주석본을 참고한 정황으로, 『당절선산』 권6 원진(元稹)의 <聞白樂天左降江州司馬>시에는 미비(尾批)로 “樂天云, 他人尙不可聞況僕乎.”와 “洪云, 長歌之哀, 過於動哭此語誠然.” 두 비어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품회』의 해당 시에도 두 비어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어서, 허균이 백낙천과 홍매의 개별 편저를 보고 인용한 것이 아닌 『당시품회』 주석본을 통

해 두 비어를 동시에 옮겨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당절선산』에 보이는 유진옹, 방회, 양만리, 사방득의 비어 대부분도 『당시품회』에 이미 기록된 내용을 가져온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당이가시초』에도 편자인 매정조의 비어 외에, 매정조가 소사빈(蕭士贇), 양제현(楊齊賢), 양신(楊愼), 유진옹(劉辰翁), 왕세정(王世貞), 범덕기(范德幾)의 비어를 모아놓았는데, 이들의 비어가 그대로 『당절선산』에 반영되었다. 다만 『당이가시초』는 이백과 두보의 시만 수록한 책이어서, 『당절선산』 내의 이백 시에만 『당이가시초』의 비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 “顧云”으로 된 것은 예외 없이 고린의 『비점당음』에 소재한 비어였다. 『비점당음』에 대해서는 허균이 『성소부부고』에 <비점당음발>이라는 발문을 쓴 것이 있어서,<sup>24</sup> 허균이 직접 책을 참고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당절선산』 비어의 출전

서명	『당절선산』의 인용 상황 표기	중국 문인 성명
『당시품회』	劉云 / 方云 / 楊誠齋云 / 皎然云 / 朱子云 / 謝云 / 樂天云 / 洪云 / 苕溪漁隱云 / 歐公詩話云 / 葉云 / 劉云	유진옹(劉辰翁), 방회(方回), 양만리(楊萬里), 교연(皎然), 주자(朱子), 사방득(謝枋得), 백낙천(白樂天), 홍매(洪邁), 호자(胡仔), 구양수(歐陽脩), 섭몽득(葉夢得), 유극장(劉克莊)
『당이가시초』	梅云 / 蕭云 / 楊齊賢云 / 劉云 / 王云 / 范云	매정조(梅鼎祚), 소사빈(蕭士贇), 양제현(楊齊賢), 양신(楊愼), 유진옹(劉辰翁), 왕세정(王世貞), 범덕기(范德幾)
『비점당음』	顧云	고린(顧麟)
기타	王云 / 徐禎卿云 / 皇甫沔云外	왕세정(王世貞), 서정경(徐禎卿), 황보방(皇甫沔) 외

〈표 7〉을 보면 허균이 『당절선산』에 부기한 비어의 원 비평자는 유진옹(劉辰翁), 방회(方回), 양만리(楊萬里), 교연(皎然), 주자(朱子), 사방득(謝枋得), 백낙천(白樂天), 홍매(洪邁), 호자(胡仔), 구양수(歐陽脩), 섭몽득(葉夢得), 유극장(劉克莊), 고린(顧麟), 매정조(梅鼎祚), 소사빈(蕭士贇), 양제현(楊齊賢), 양신(楊愼), 왕세정(王世貞), 범덕기(范德幾), 서정

23 『당절선산』에는 “○云”으로 시작하진 않지만, 중국 문인의 비어로 확인된 사례가 한 군데 있다. 권6의 왕창령(王昌齡)의 <青樓曲> 2수에 붙은 비어는 “此二篇音律雄渾, 句法清新, 可次閨怨.”으로 되어있어서 허균의 비어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린(顧麟)의 비평이다. 이 비어는 『비점당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許筠, 『惺所覆瓿稿』卷13, 「文部」10, <批點唐音跋> (『韓國文集叢刊』 74輯).

경(徐禎卿), 황보방(皇甫昉) 등으로, 많은 중국 문인들의 기존 시평들이 『당절선산』에 두루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어가 『당시품회』, 『비점당음』, 『당이가시초』를 출전으로 한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유진웅의 비어는 『당시품회』 주석본에 수록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당이가시초』에도 그의 비어가 인용되어 있다. 허균은 『당절선산』에서 권6 이백의 시 〈峨眉月歌〉에 “劉云, 含情淒婉, 有竹枝漂渺之音.”과 “王云, 此是太白佳境, 然二十八字中有地名五, 使後人爲之不勝痕迹矣, 蓋見此老鑪錘之妙.”라고 하여 유진웅과 왕세정의 비어를 함께 부기했다. 위의 유진웅의 비어는 『당시품회』와 『당이가시초』에 모두 등장하지만, 『당이가시초』에서 두 문인의 비어를 나란히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균은 『당이가시초』를 보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유진웅의 비어임이 분명하지만 『당시품회』와 『당이가시초』에 없는 사례도 한 군데 확인되는데, 왕유(王維)의 시에 붙은 비어여서, 허균이 유진웅의 『왕맹시평(王孟詩評)』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허균이 최초의 출전을 본 것인지 비어를 모아놓은 다른 평주본이나 비평서 등을 참고한 것인지 정확하게 논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왕세정의 일부 비어라든지 서정경의 비어역 시도 <표 7>의 3종 문헌에 보이는 비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원치언(藝苑卮言)』이나 『담예록(談藝錄)』 등의 개별 저술을 통해 허균이 직접 인용했다고 추정해볼 뿐이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당절선산』에는 중국 문인의 비어가 다수 인용되어 있지만, 허균이 직접 붙인 128개의 비어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허균의 비어에 대해서는 앞서 <표 4>를 통해 『국조시산』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소개한 바 있다. 비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후고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각권에 소재한 비어의 총량과 출전별 비어의 수량부터 정리해 보았다.

<표 8> 『당절선산』 비어의 현황

권차	수록시의 출전	시수	비어수	비어의 출전과 출전별 비어수 <sup>25</sup>
권1	李攀龍, 『古今詩刪』	54수	28개	품회9/비점9/당이가1/허균7/기타2
권2	徐充, 『百家選』	46수	11개	품회2/허균9
권3	楊士弘, 『唐音』	105수	42개	품회13/비점22/허균7
권4	楊士弘, 『唐音』	55수	17개	품회1
권5	高棟, 『唐詩品彙』	91수	18개	품회8/비점1/당이가2/허균5/기타2
권6	李攀龍, 『古今詩刪』	123수	54개	품회10/비점16/당이가5/허균20/기타3
권7	徐充, 『百家選』	106수	20개	품회5/허균15
권8	楊士弘, 『唐音』	95수	57개	품회11/비점24/허균20/기타2
권9	楊士弘, 『唐音』	95수	37개	품회6/비점5/허균26
권10	高棟, 『唐詩品彙』	156수	33개	품회10/당이가4/허균19
합계		926수	301개	품회75/비점77/당이가12/허균128/기타9

『당절선산』의 시는 모두 926수인데 비어는 시수의 1/3에 해당하는 301개가 부기되어 있다. 그러나 시 한 수당 비어 하나가 배정된 것이 아니라, 시에 따라 2~3개의 비어가 부기된 것도 있어서 실제로 비어가 붙은 시는 237수이다. 301개의 비어 중에서 중국 문인의 비평글이 아닌 허균의 언어로 기록된 비어는 128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고린의 『비점당음』에서 가져온 “顧云”으로 시작하는 고린의 비어가 77개나 된다. 『당시품회』 주석본의 비어는 75개가 전하고, 그밖에 『당이가시초』의 평주에서 12개의 비어를 인용하였다. <표 8>을 통해서 각 출전별, 권차별, 시형식별로 다르게 배정된 비어의 분포 현황, 수록시에 따라 달라진 출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선발된 시와 비어 출전 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당이가시초』부터 살펴보면, 우선 이 책은 이백과 두보의 시만 선별하여 수록한 시선집이다. 『당절선

<sup>25</sup> 한 행에 여러 서명을 배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부득이 서명을 임의로 축소해서 정리하였다. 『당시품회』는 ‘품회’로, 『비점당음』은 ‘비점’, 『당이가시초』는 ‘당이가’로 표기하였다.

산』에서 『당이가시초』의 비어는 이백의 시에서만 보이는데, 허균은 이백의 시를 『고금시산』과 『당시품회』를 통해서만 선발했다. 서충의 『백가선』은 실본 공개가 안 된 상태여서 이백시의 수록 여부를 알 수 없고, 양사홍의 『당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백과 두보, 한유의 시를 수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이가시초』에서 가져온 12개의 비어는 모두 『고금시산』과 『당시품회』의 시로만 구성된 권1,5,6,10에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비점당음』의 비어가 부기된 권수를 살펴보면, 서충의 『백가선』을 통해 뽑은 시들(권2와 권7)에는 『비점당음』의 비어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권4 『당음』출전 시들에도 같은 양상이 이어졌다. 『비점당음』에서는 성당(盛唐) 시인의 작품을 위주로 비평을 가하고 있는데, 해당 권의 시들은 만당(晩唐) 시인들의 작품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점당음』의 비평 범위 밖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권9의 『당음』 수록시들 역시 만당 시인들로 구성되면서 『비점당음』의 비어는 두목의 시에 한해서만 적용된 모습이 보인다. 『당절선산』의 수록시를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성당 시인들의 작품을 비롯한 주요 시들은 『고금시산』과 『당음』의 앞권에서 주로 선발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나중에 배치된 『당시품회』 소재 시들은 주요 시 외에 남은 시들로 구성되면서 『비점당음』의 비어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별 수록 시수와 비어수의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권1과 권6의 『고금시산』과 권3과 권8의 『당음』에는 수록 시수 대비 비어의 수가 많다. 이에 비해 서충의 『백가선』 소재 시들은 비어의 수량이 현저하게 적고, 특히 권4 『당음』 소재 시들은 만당시 위주로 선발되면서 55수 중에서 단 한 수의 시에만 비어가 부기된 상황이다. 중국 비평가들도 모든 당시에 비어를 붙일 수는 없는 것이다. 대체로 성당 시인의 작품이라든지 잘 알려진 시들 위주로 선집을 구성하고 평가를 쌓아갔고, 그 결과, 중국 문헌을 출전으로 하는 비어들은 권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 문인의 비평이 적게 적용된 부분에 한해서는 허균이 자체적으로 비어를 붙일 법도 하다. <표 8>을 보면 오언절구 351수에 대해서 허균이 28개의 비어를 붙였고, 칠언절구 575수에는 100개의 비어를 부기한 사실이 보인다. 우선 칠언절구에 한해서는 허균이 모든 시들에 고루 비어를 남기고 있고, 특히 중국 문인의 비어가 적게 기재된 권7과 권9에서도 허균이 자체적으로 비어를 추가해서 권별로 비어가 편중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오언절구 부분은 칠언절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특히 권4에는 허균이 전혀 비어를 붙이지 않았다. 권4의 수록시는 「시음(始音)」-「정음(正音)」-「유향(遺響)」의 편목으로 구성된 『당음』에서도 ‘유향’에 해당하는 시로만 구성되었는데, 허균은 이들 시에 대해서 어떠한 비평도 추가하지 않았다. 오언절구에 붙인 허균의 다른 비평들을 보면 대체로 인상비평의 경향이 강하지만, 이에 반해 칠언절구의 경우는 시의 구조나 핵심이 되는 시어에 대한 평가, 특정 시인의 시풍과의 비교, 악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비평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허균이 당의 칠언절구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에 반해, 오언절구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 3.2.2. 『당절선산』 비어의 편집 양상

『당절선산』에 수록된 중국 문인들의 비어는 상당수가 허균에 의해 재편되었으며, 원 모습과 비교할 때 축약 또는 부분적 변형이 확인된다.

<표 9>는 『당절선산』에 수록된 중국 문인들의 비어가 원 출전에 수록된 문장과는 달리 축소된 사례를 모아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비어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문맥은 유지되고 있어서, 허균이 책에 옮기는 과정에서 편의상 축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僧皎然云→皎然云” “岑寂可想→岑寂” “此詩人感時多故而作→此詩人感時而作” 과 같

〈표 9〉 『당절선산』에서 축소된 비어

	작가와작품명	원 비어	『당절선산』의 비어
권1	王維〈雜詩〉	二事皆淡中有情(『비점당음』)	淡中有情
권3	宋之間〈早發韶州〉	僧皎然云思也(『당시품회』)	皎然云思也
권6	王昌齡〈青樓曲〉	顧云 此二篇音律雄渾 句法清新 可次閨怨(『비점당음』)	此二篇音律雄渾 句法清新 可次閨怨
	王昌齡〈閨怨〉	顧云 宮情閨怨作者多矣 未有如此與青樓曲二首者 雍容渾含 明白簡易 真有雅音 絕句中之極品也(『비점당음』)	顧云 宮情閨怨作者多矣 未有如此者 雍容渾含 明白簡易 絕句中之極品
	元稹 〈聞白樂天左降江州司馬〉	白樂天云 此句他人尚不可聞況僕哉(『당시품회』) 洪容齋云 嬉笑之怒 甚於裂眚 長歌之悲 過於慟哭 此語誠然(『당시품회』)	樂天云 他人尚不可聞況僕乎 洪云 嬉笑之怒 甚於裂眚 長歌之哀 過於慟哭 此語誠然
권7	李涉 〈過襄陽上于司空〉	謝云 于公鎮襄陽爲政苛刻此詩以羊祜之仁襄陽人思之無窮 勸于公當以羊祜爲法詞婉而妙(『당시품회』)	謝云 勸于公以羊公爲法詞婉而妙
권8	劉長卿 〈過鄭山人所居〉	顧云 岑寂可想(『비점당음』)	顧云 岑寂
	韋應物〈滁州西澗〉	謝云 此詩人感時多故而作(『당시품회』)	謝云 此詩人感時而作
	竇鞏〈南遊感興〉	謝云 此詩四句無限意思 非巧心妙手不能摹寫(『당시품회』)	謝云 四句無限意思 非巧心妙手不能摹寫
권9	陳陶〈閑居雜興〉	謝云 天下有非常之才 不能用 隱於漁釣 未可謂世無英雄也(『당시품회』)	謝云 天下非常之才 不能用 隱於漁釣 未可謂世無英雄也
권10	錢起 〈暮春歸故山草堂〉	謝云 此與歲寒然後知松栢後凋之意同(『당시품회』)	謝云 此與松栢後凋之意同
	劉禹錫 〈洛陽春末送杜錄事〉	謝云 此詩爲世道衰光竟促未至春光結局時也 末句勸其不忘君也(『당시품회』)	謝云 末句勸其不忘君也
	劉長卿 〈酬李穆見寄〉	劉後村詩語云 魏野林逋 不能及也(『당시품회』)	劉云 魏野林逋 不能及也

은 경우도 비평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았고, “謝云, 此與歲寒然後知松栢後凋之意同 → 謝云 此與松栢後凋之意同” 역시 최대한 분량을 줄였지만 핵심 의도는 전달되고 있다.

다만 일부 비어들은 허균이 부득이하게 기존 문장을 축소해야 했다. 권1 왕유 〈雜詩〉는 원래 2수이며, 고린은 『비점당음』에서 2수의 시에 대하여 “二事皆淡中有情.”으로 평가한 바가 있다. 그러나 허균은 〈雜詩〉중에서 한 수를 우선 『당절선산』 권1에 선발하였고, 따라서 고린의 비어 중 “二事皆”를 소거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비점당음』에서는 권6 왕창령 〈閨怨〉에 대해 “宮情閨怨作者多矣, 未有如此與青樓曲二首者, 雍容渾含, 明白簡易, 真有雅音, 絕句中之極品也.”라고 하여 〈閨怨〉 시에 대해 그

의 또 다른 작품인 〈青樓曲〉과 아울러서 궁정과 규원을 다룬 절구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하였지만, 허균은 “與青樓曲二首”를 제외하고 해당 시에 대한 비평만 『당절선산』에 붙였다.

이밖에 허균이 “洪容齋云 → 洪云” “劉後村詩語云 → 劉云”으로 한 것은 『당절선산』의 비어가 독자를 의식한 책이 아닌 상황을 보여준다. 기존 비어는 비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세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지만, 허균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姓+云’의 조합에 맞추어 축소하였다. 그 결과 권10 유장경의 시에 부기된 “劉云”의 경우는, 다른 문헌을 살피지 않고서는 유극장이 아닌 유진웅의 비어로 오인하기 쉽게 되어 있다.

허균은 기존 비어를 축소하기도 했지만, 옹기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바꾸기도 하였다. 〈표 10〉에서 몇 가지 사례를 모아보았다.

허균이 기존 비어에서 교체한 글자는

“除夕 → 除夜” “甚濃 → 漸濃” “典重 → 鄭重” “優柔 → 優游” 등인데, 이러한 방향 역시 표현상의 미세한 차이만을 뿐이지 비평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허균이 기존 비어를 평소 익숙한 표현으로 옮긴 결과로 생각된다. 〈표 10〉의 마지막 예시에는 “石林詩話云 → 葉云”으로 한 것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 허균이 다른 문인의 비어를 『당절선산』에 인용할 때 ‘姓+云’의 조합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술명이 아닌 저자를 드러내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권8 왕건의 〈宮中詞〉에는 “歐陽詩話云 → 歐公詩話云”이라고 하여 단 한 군데 예외적으로 출전을 명시한 경우가 남아있는데, 『육일시화』에 대해 ‘구양시화’라고 한

〈표 10〉 『당절선산』에서 글자가 교체된 비어

	작가와 작품명	원 비어	『당절선산』의 비어
권3	崔顥〈長干行〉	只寫相問語其情自見(『당시품회』)	只寫相問意其情自見
권6	高適〈除夜作〉	謝云 客中除夕 聞此兩句 誰不凄然 (『당시품회』)	謝云 客中除夜 聞此詩者 誰不凄然
	韋應物 〈登樓寄王卿〉	劉云 野興甚濃 復增兩聯 即情味不復如此 (『당시품회』)	劉云 野興漸濃 復增兩聯 即情味不復如此
권8	王建〈宮中詞〉	歐陽詩話云 王建宮詞一百首 多言唐禁中事 皆史傳小說所不載者 往往見於詩 (『당시품회』)	歐公詩話云 王建宮詞一百首 多言唐禁中事 皆史傳小說所不載者 往往見於詩
권9	杜牧〈赤壁〉	顧云 結不典重 所以爲晚唐(『비점당음』)	顧云 結不鄭重 所以爲晚唐
	杜牧 〈寄揚州韓綽判官〉	顧云 優柔平實 有似中唐(『비점당음』)	顧云 優遊平實 有似中唐
	杜牧 〈將赴吳興登樂遊原〉	石林詩話云 是不滿於當時(『당시품회』)	葉云 是不滿於當時

저본의 표현을 별칭 ‘구공시화’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상의 살핀 사례들은, 허균이 기존 비어를 축소하거나 편집했다 해도 비평의 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였다. 예외적으로 비어가 반복되거나 일부 허균의 실수가 확인되는 비어도 있어서 밝혀두기로 한다.

앞서 소개하기도 했던 왕유의 〈雜詩〉는 원래 2수인데, 본 『당절선산』에서는 권1과 권3에 각각 배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권1에 붙었던 “淡中有情”이라는 비어가 권3에도 반복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권1에 2수를 함께 수록했다면, 비어의 반복이 없었겠지만, 허균이 권1에서 선시 자료로 삼았던 『고금시산』에서는 〈雜詩〉 중 한 수만 수록하고 있어서 2수를 함께 묶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비점당음』에서 “二事皆淡中有情.”이었던 비어는 『당절선산』에서 “淡中有情”으로 축소되고, 두 번이나 기록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비어 필사 과정에서의 실수이다. 권8 낭사원의 〈聽隣家吹笙〉에는 “劉云, 情思句律, 極其工巧.”라는 비어가 보이는데, 이 비어는 출전인 『당시품회』에 “謝云”으로 되어 있다. 사방득(謝枋得)의 비어가 확실하기 때문에 허균이 “劉云”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권6 왕창령 〈靑樓曲〉 2수에 붙은 비어는 “此二篇音律雄渾, 句法清新,

可次闡怨.”로 되어 있어서 “○云”이 없는 허균의 비어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비어는 고린의 『비점당음』에 기록되어 있다. 허균이 “顧云”을 빠뜨린 상황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당절선산』에 부기된 모든 비어에 대해 기존 문헌 소재 비어와의 검토를 거쳤고, 이를 통해 중국 문인의 비어와 허균의 비어를 분리하여 『당절선산』에 적용된 비어의 실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당절선산』 소재 비어에 대한 조명과 분석의 필요성에서, 비어의 작자 고증과 더불어 비어의 현황, 출전 문제를 검토하고 허균의 비어 편집 과정까지 살펴보았다.

먼저, 작자 문제는 허균이 직접 비어를 붙였을 정황을 근거로 기존 허균의 필적과의 정밀한 대비를 통해 허균의 필적으로 확정하였고, 추가로 『국조시산』에 소재한 허균 비어와의 구별 비교를 시도하여, 『당절선산』에 주목 소재로 필사된 비어가 허균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당절선산』 수록시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선시 과정에서 기인한 시의 중복 사례를 밝혀서 시제수를 재정리하였고, 실제 수록 시들이 허균이 밝힌 저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면서, 『당절선산』이 간행을 의식한 책이 아니라, 당의 절구를 정리하려는 허균 개인의 필요와 학습 과정에서 파생된 책일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당절선산』의 비어들은 모두 301개가 전하는데, 본고

에서는 그 비어의 출전과 권별 수량을 정리하여, 허균이 실제 참조했던 중국 문헌의 목록과 비어가 적용된 비평가의 명단을 모두 밝혔다. 이어서 권별 비어의 수량과 내용을 검토하여, 중국 비평가들의 비평 대상이 되지 못했던 『당절선산』의 수록시의 목록과 성격이라든지, 허균이 칠언절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칠언절구 비평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어의 편집 상황을 고찰하여 『당절선산』의 비어들이 이 책의 선시 방향과 편집 방식에 맞추어서 재구성되었음을 밝혔다.

다만, 본고에서는 『당절선산』 비어의 작자를 고증하고 비어의 출전과 편집 과정을 정리했을 뿐, 비어의 내용 분석까지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본고에서 소개한 『당절선산』의 비어들은 중국 평주본 문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결과물이다. 특히 『당절선산』에는 허균의 비어 외에도 허균이 직접 선택한 중국 문인의 비어가 제시되어 있어서, 기존 비어에 대한 허균의 취사 양상까지 살필 수 있으며, 비평 대상 시에 대해 중국 문인의 비어와 허균의 비어가 병치된 것도 여러 사례가 있어서 『당절선산』에 부기된 허균의 비평 내용은 다각도로 분석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당절선산』에 보이는 허균이 붙인 비어들은 동시대 명 문단의 유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허균과 주변 인물들의 조선 중기 한시 비평의 한 방향으로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비어의 내용 분석과 비어를 통한 비평 방식에 대한 고찰은 후고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徐充, 『唐詩粹選』(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청구기호 T5237.472901)  
楊士弘編選; 張震輯注; 顧璘評點, 『唐音評注』上, 下, 河北大學出版社, 2006.  
吳世昌編輯, 『權墨』禮,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9.  
許筠, 『唐絕選刪』(국립중앙도서관, 古貴3715-3)  
許筠, 『惺所覆瓿藁』(『韓國文集叢刊』74)  
域外漢籍珍本文庫編纂出版委員會編, 『域外漢籍珍本文庫: 第5輯, 集部』,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5.

### 2. 단행본 및 논문

- 구지현, 「허균의 시선집 『당절선산(唐絶選刪)』의 구성과 선시(選詩) 양상」, 『연민학지』40, 연민학회, 2023.  
부유섭, 「허균이 뽑은 중국시(1): ‘唐絶選刪’」, 『문헌과해석』27, 문헌과해석사, 2004.  
심경호, 「연민선생의 문학연구방법론에 관한 규건」, 『연민학지』17, 연민학회, 2012.  
윤호진, 「수색집의 두평에 대하여」, 『한문교육논집』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이항배, 「批選龜峰先生詩集의 批注 體例와 著者」, 『한문학논집』29, 근역한문학회, 2009.  
임미정, 『국조시산 연구』, 보고서, 2017.  
장유승, 「수색 허적의 고품시 소고」, 『한국한시연구』30, 한국한시학회, 2001.  
전송열, 「조선조 당시선집의 편찬 양상」, 『동방고전문학연구』6, 동방고전문학연구, 2004.  
전염순, 「조선시대 『당시품회』의 간행과 수용」, 고려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최은주, 「17세기 시선집 편찬에 대한 연구」, 경북대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허경진, 『허균 평전』, 돌베개, 2002.  
허균, 구지현역, 『당절선산』(허균전집5), 보고서, 2022.  
孫琴安著, 『唐詩選本提要』, 上海書店出版社, 2005.

### 3. 기타 자료

- 한국고전종합DB  
사고전서전자판

---

**Abstract****An Analysis of the biao (批語, marginal notes) in  
*Dangjeolseonsan* (唐絶選刪)(1)**

Focusing on Authorship Attribution and Editorial Patterns

Lim, Mi-Jung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iao (批語, marginal notes) found in *Dangjeolseonsan* (唐絶選刪), an anthology of Chinese quatrains compiled by Heo Gyun, with the aim of clarifying both their authorship and critical character. *Dangjeolseonsan* is composed exclusively of five- and seven-character jeolgu selected from four earlier Chinese anthologies, reflecting a deliberate focus on the quatrain form. The sole extant manuscript is Heo Gyun's personal copy, which contains 926 poems under 862 titles and includes over 300 biao written in red ink.

These marginal notes consist of two main types: citations of poetic criticism by Chinese literati and independent evaluative remarks that display a distinct critical voice. Despite their importance, the authorship of the biao—whether they were written by Heo Gyun himself or by another annotator—has remained unresolved. To address this issue, the present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handwriting to authenticate authorship. In addition, it examines the formal structure and thematic content of the biao in order to elucidate the nature of Heo Gyun's poetic criticism and to situate the work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reception of annotated Chinese poetry anthologies in mid-Joseon Korea.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biao in *Dangjeolseonsan* closely engage with the critical frameworks and evaluative practices developed in annotated poetic editions of the Yuan and Ming dynasties. At the same time, they reveal an active process of selection, reinterpretation, and judgment, suggesting that Heo Gyun did not merely transmit Chinese critical discourse but adapted it to articulate his own criteria of poetic value. This study thus repositions *Dangjeolseonsan* as a significant site of poetic criticism and cross-cultural literary reception in the mid-Joseon period.

**Keywords** Heo Gyun, *Dangjeolseonsan*, Bijemdangeum, Dangsipumhwi, Dangeum, Gogeumsisan, criticism of Classical Chinese poetry, marginal note

---